

이순 넘어 더 깊어진 시적 사유...진솔한 삶 시로 풀다

‘천고마비의 계절’ 외로운 시집 잇따라 출간
김흠·한영희·김황흠 시집...무더진 감성 충전
삶의 현장 다독이고 생명력·순수서정에 경의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다. 가을 초입에서 시집 읽기야말로 다시 독서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근래 지역을 연고로 활동 중인, 이순에 든 시인들의 작품이 잇따라 나왔다.

이들은 모두 이순에 든 시인들로 최근 4·3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해 시적 도전을 계속하는가 하면, 도시농부로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등 일상을 탄탄하게 살아내며 시적 깊이를 더하고 있다. 김흠 시인 등 이들은 시집이라는 결과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먼저 전남 장성 출신의 목사시인으로 제주4·3문학상 수상자인 김흠(본명 김형미·송정제일교회) 씨가 신작시집 ‘반야요, 한 다발의 침묵’(문학들刊)을 펴냈다.

문학들 시인선 44번째 권으로 나온 이 시집은 전남 담양을 오랫동안 거닐었던 시간들에 대한 시인의 시적 사유를 응축했다. 시집에는 면양정과 식영정, 송강정 등 유적은 물론 대치 대장간, 강외리 빈집, 고서 포도밭 등 삶의 현장들이 펼쳐진다. 이 삶의 현장들을 시인의 예리한 촉수와 감수성으로 새롭게 직조한 시편들이 마음에 잔상처럼 남아 꿈틀댄다.

시집에서는 담양과 시인의 현적이 포착된다. 이는 시인이 어떤 사유의 틀 아래 침잠하며 사는가를 직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심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담양과 목사라고 하는 건국을 읽어내는 것도 전체적으로 시세계를 이해하

는 데 나쁠 것은 없다.

‘직진의 힘을 믿고 달렸지만 무엇이 되지 못한 내가/옹마투길 인공폭포 아래 서 있습니다//폭포는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물의 최대화’(‘폭포의 탄생’)이나 ‘시름이 지나가는 길목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 보니/나도 모르는 사이 신이 되었습니다’(‘신과 나무 사이에’) 같은 시 대목은 내적 건강성의 기반 아래 유난히 시인과 정서적으로 한층 더 밀착되는 느낌이다.

이번 시집은 제4부로 구성, 56편의 작품이 실렸다.

김규성 시인은 해설을 통해 “사물에 대한 김흠의 시선은 그의 필명처럼 사물을 향한 측은지심과 긍휼, 이타적 배려가 바탕을 이룬다. 우울한 일상의 주변에서 소중하고 진정한 가치를 도출해내 그 프리즘을 키우고 빛나게 닦아 따스하고 섬세한 고차원의 작품을 빚는다. 김흠은 이번 시집에서 담양의 배경이자 주제로 한 시편들을 한데 모아, 지역적 특성을 보편적 명제로 끌어올리는 성취를 이룬다”고 평했다.

또 농촌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에 돌입한 전남 영암 출신 한영희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별이 빛나는 느티나무’를 푸른사상 시선 230번째 권으로 출간했다. 보도블록 틈새에서 허리를 세우는 민들레, 산불이 휩쓸고 간 잣더미 속에서 연도빛 손을 밀어올리는 나무 등 자연 존재들의 생명력에 경의



김흠 시인



를 표하는 동시에 자연을 단순히 관찰하거나 감정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인간의 생존 의지를 확인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지평을 모색한다.

특히 식물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고통을 재구성, 독보적인 시 세계를 구축한다는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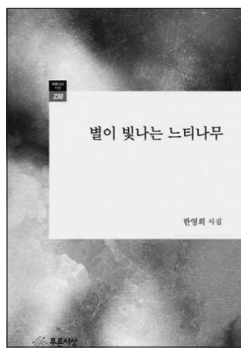
이전 첫 시집 ‘풀이라서 다행이다’에서 보여줬던 시인은 자연을 단순한 관찰의 대상이나 인간의 정서를 투영하는 배경으로 치부하지 않고, 자연의 생명력이 인간의 고난과 어떻게 공존하며 상호 침투하는지를 집요하게 탐색한다.

이번 시집에서도 시인은 이름 없는 풀과 꽃들이 자신의 색을 뚫고 나오는 시간의 충위를 포착해 이를 불안한 인간 의식의 절규와 결합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강가에서 들리는 식물의 숨소리를 통해 자신의 생존 의지를 확인하며, 식물의 물리적 성장이 곧 인간 정신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임을 시로 증명하고 있다.

시 ‘레몬’에서는 이런 시적 사유들이 모두 투영돼 있다. 시인은 ‘내가 외롭고 슬피요 벽에 걸린 거울을 보고 혼잣말을 중얼거려요//...중략...//이명증이 올라오는 불안한 모퉁이 사랑방을 짚싸게 빠져



한영희 시인



나왔다 그날 밤 우주의 별들이 자리를 바꾸는 꿈을 꾸었다’고 노래한다.

김병호 교수(협성대)는 해설을 통해 “그가 보여주는 시적 통찰은 모든 비인간 물질에 내재한 활기와 행위 주체성에 주목하는 시적 자세와 깊이 맞닿아 있다. 식물과 자연을 수동적인 도구로 여기지 않고 인간과 더불어 세계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활력가로서 존중하며, 식물의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 생동하는 물질의 힘을 포착해 내는 시적 태도가 한영희 시의 개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요소”라고 평했다. 이번 시집은 제4부로 구성, 50편의 작품이 실렸다.

여기다 시와 시집을 넘나들며 광주의 도시농부 시인으로 활동을 펼쳐왔던 김황흠 시인이 산문집이자 농사 일기 ‘풀씨는 힘이 세다’를 펴낸 이후 3년 만에 네번째 시집 ‘어둠이 늘 나를 마중나와 주었다’를 낚는사람 시인선 159번째 권으로 펴냈다.

시인은 순수한 서정의 소유자로 그의 시에서 맑은 심성이 읽힌다는 점이 강점이다. 그는 시적 기교보다는 투박한 감정이 지나는 대로 순응하며 시적 메타포를 이룬다. 여전히 그의 시의 발에는 농사가 펼쳐져 있다. 시편들에 도시농부로서의 삶이 곳곳



김황흠 시인



에 투영돼 있다. 그에게 ‘묵묵히 길을 이어’(‘삼발이’)가는 일이란 정신적 본업 시 짓기이자 생태적 본업 농사 짓기 등 두 개의 삶이 공존한다. 세상으로 난 길들은 많지만 시인에게 가장 소중한 길은 ‘땅속 물길’(‘바랭이’)이다. 물길을 찾는 것은 농부의 숙명이다. 시인은 숙명에 순응하며 일상을 조율한다.

이번 시집은 ‘흔사 버스 노선표를 보고 있다’, ‘함께 고개를 숙인 오후’, ‘가을이 흩어진다’, ‘누군가 다녀간 듯’ 등 제4부로 구성, 분주한 일상 속 틈틈이 창작해온 시 57편이 실렸다.

앞서 언급한 ‘반야요, 한 다발의 침묵’의 김흠 시인이 표사를 맡았다. 김흠 시인은 표사에서 “지심(地心)을 탄주하는 풀빛 애가, 꾸밈없는 그의 노래는 너무 맑아서 아프다. 김 시인은 흙이 쉬는 숨을 알고 있는 시인이자, 강가에 지라는 풀들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며 풀들과 벗하는 시인이다. 또 풀을 뽀뽀다. 뽀뽀한 가랑 파 한 포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눈독길에 올라오는 풀에서 떠난 아버지를 보는 시인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시에서는 풀 냄새가 난다. 흙냄새, 가랑 냄새가 난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한 줄의 시가 풍성한 화성으로 ‘가을 수놓은 합창’

전남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내달 16일 예당 소극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창은)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7시 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205회 정기연주회 ‘가을의 서정 II’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가을의 정취를 담은 시를 성악가의 독창과 합창단의 풍성한 화성으로 풀어내는 무대다. 활자로 머물던 시어가 노래가 되고, 독창과 합창, 악기 선율을 거쳐 입체적인 음악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선보인다.

공연은 로비에서부터 시작된다. 합창단은 공연장 로비에 무대에서 불릴 시(詩) 구절들을 시각적으로 연출해 관객들이 공연 전 가을의 시어를 먼저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관객들은 로비에서 시를 눈으로 읽고, 객석에서는 같은 시가 음악으로 변주되는 과정을 귀로 듣게 된다.

무대의 첫 장은 시와 현대 창작합창의 만남으로 열린다. 시인 천양희의 시에 박나리 작곡가가 곡을 붙인 ‘오래된 가을’과 김바하 편곡의 ‘가을밤’을 통해 가을밤의 서정을 섬세한 합창으로 전한다.

이어 학창 시절 교과서와 시집에서 마주했던 명시들이 독창과 합창으로 펼쳐진다. 베이스 임해철과 소프라노 김애령이 한명희 시·장영남 곡의 ‘비목’, 윤용하 곡의 ‘보리밭’, 김호근 곡의 ‘눈’, 설도시·김성태 곡의 ‘동심초’를 원곡의 서정으로 들려준다.

각 독창 뒤에는 현대 작곡가들이 편곡한 대합창 버전이 이어진다. 성악가의 목직한 울림에서 합창단의 풍성한 화성으로 확장되는 구성이다. 여기에 첼로 최승욱, 더블베이스 서지은, 드럼 이현동의 연주가 더해져 시 한 편이 지닌 감동을 더욱 입체



임창은



김애령

적으로 완성한다.

마지막 무대는 시와 민요에 담긴 해학과 흥으로 분위기를 바꾼다. 경기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지은 편곡의 ‘군밤 타령’은 향퍼리 김유민의 신명 나는 가락과 만나 경쾌한 에너지로 전한다.

권나현 시·조혜영 작곡의 ‘봄 바람난 년들’은 솔직하고 화이트 있는 시선으로 관객들에게 유쾌한 웃음과 활력을 선사하며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번 공연에는 전문 진행자 황정숙의 해설이 곁들여진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망국의 설움 달랜 ‘쑥대머리’...판소리로 듣는 그 시절

국립남도국악원 30일 진도서 강의형 풍류음악회

나라 잃은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판소리의 뒷이야기가 해설을 곁들인 공연으로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진도군 옥주골 창작소에서 강의형 국악 공연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나라 잃은 백성을 달래 준 판소리’를 주제로, 일제강점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이화중선과 임방울 명창의 삶과 음악성을 조명한다.

관객은 전통 공연예술인 판소리가 새로운 공연 환경과 시대적 격변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또 대중과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해설과 공연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강의와 해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를 역임한 이태화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판소리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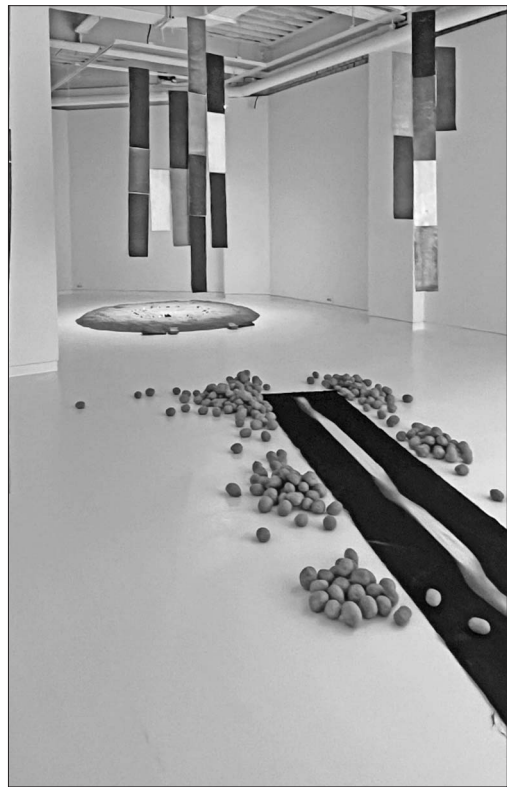


있다.

무대에는 남원시립국악단 임현빈 악장과 김윤선 상임단원,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보 이수자인 공도순이 함께 오른다.

이들은 ‘춘향가’ 중 ‘쑥대머리’, ‘심청가’ 중 ‘추월만정’, 단가 ‘추악’ 등을 들려주며, 판소리의 깊은 정서와 시대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 산수동에 새 동지



재개관전 전시 전경. 작품은 재개관전에 출품된 위주리 작가의 ‘사이의 몸들’.

올해 결성 11주년을 맞은 광주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OverLab·대표 김선영)이 새롭게 동지를 들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재개관전을 열었다.

미술관이나 제도권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세대, 장르, 지역, 국가 등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실험적인 예술 연구와 장소 기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해온 오버랩은 2015년 광주 아트씬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결성, 2017년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서 ‘1점 실험전시’와 비대면 국제 공동장작 교류 등 유의미한 실험을 지속해 왔다.

특히 오버랩은 미술관이나 제도권 문화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작가와 기획자, 비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과 협업하며 전시와 큐레토리얼 리서치, 지역과 장소에 기반한 예술 프로젝트를 이어왔다.

광주 남구 월산동에 첫 공간을 마련한 이후에는 지역의 역사와 도시의 변화, 동시대의 사회적 의제를 예술의 관점에서 탐구하며 새로운 전시 형식과 협업 방식을 탐구해 왔다. 정형화된 미술공간이 주류인데도 이를 따라가기보다는 오버랩만의 철학과 소신으로 다양한 실험과 독창적 기획을 실

현해 왔다.

이번에는 광주 동구 산수동(갈마로 6, 하나지과 3층)에 새 거점을 마련했다.

기존 월산동 공간이 하나의 작품과 실험에 집중하는 ‘1점 실험전시’를 중심으로 운영했다면, 새 공간은 보다 넓어진 전시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규모와 형식의 작품을 실험하고 새로운 전시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번 공간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오버랩이 그동안 축적해온 큐레토리얼 리서치와 협업의 경험을 확장하고, 지역 안팎의 창작자들이 새로운 전시와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버랩은 앞으로도 작가와 기획자 등 다양한 예술 생산자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전시와 연구, 국내외 교류 및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지역 독립예술 생태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오버랩의 기존 색깔은 변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오버랩은 광주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독창적 기획이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놓지 않는 미술지점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그 미술지점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차기 미술 행보를 유추해볼 수 있는 전시가 성황리 진행됐다. 재개관전이자 새 공간의 첫 전시로 ‘2026 ICC: 리서치랩 결과’ 전시가 이뤄졌다. 지난 15일 개막, 27일까지 ‘: 마침표 다음’이라는 전시를 열었다. 지난 19일 오후에는 전시 오프닝과 함께 새 공간의 출발을 알리는 오프닝 파티가 열렸다.

이번 재개관전에는 기획자 김재신과 작가 김은택, 위주리, 최근영이 한 팀을 이뤄 세미나와 공동 리서치, 작품 제작을 진행했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대한 정치적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 개인이 일상에서 타인을 대하고 세계를 판단하는 태도에서부터 살펴봤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참여자들은 개인의 신념과 기준을 절대시하는 태도가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전시 타이틀인 ‘: 마침표 다음’은 현재의 기준과 판단을 하나의 ‘마침표’에 빚었다. 마침표 뒤의

여백은 지금의 판단을 마지막 결론으로 확정하지 않고, 새로운 존재와 사실을 마주할 때 다시 생각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오버랩이 2017년부터 이어온 신진 기획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ICC의 마지막 회차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ICC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신진 기획자들과 협업하며 전시 기획과 연구에 필요한 방법론 및 실무를 다루는 워크숍, 개별 연구와 멘토링을 통해 참여자가 독립적인 연구 결과물을 기획하고 구현하는 전 과정을 지원해왔다.

광주를 기반으로 실험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이어온 오버랩이 산수동 공간에서 지역 내 독립큐레이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신진 기획자를 길러내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 가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지역연계 우수전시인 ‘궁감분능’의 큐레이션을 맡는 등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예술로 소통하는 작업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향후 전시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밀도를 보여줄 지 궁금하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동시대의 사회적 의제, 예술의 관점에서 탐구 유의미한 실험 지속
독립예술 생태계 구축 모색·독창적 기획 시도...재개관전 ‘성향’